

# 중국인 불법체류자 제주시 탈출 행렬

### 3일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수백여명 몰려 코로나19 여파 일거리 찾기 힘든 때문으로 분석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에 무사증 등으로 입국해 숨어있던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탈출 행렬이 급증하고 있다.

3일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는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200여명이 몰리며 복세통을 이뤘다. 건물 정문은 물론이고, 옆문까지 중국인들이 줄을 서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후문은 원활한 출입 통제를 위해 출구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려든 탓에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려는 중국인들 간 말싸움도 오고 갔다. 직원들은 다름을 막기 위해 번호표를 배부하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안내했다.

불법체류 신분인 중국인 여성 A(33)씨는 "가족들이 최근 중국보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더 발생하고 있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제주지역은 그나마 안전하지만 가족들도 걱정하고 있어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국인 남성 B(41)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을 못 한다면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중국인 자진출국 신고자는 1월 674명, 2월 1일부터 23일까지는 84명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한 23일 이후부터 지난달 29일까지는 463명, 하루 평균 90여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2일과 3일까지 이틀간 총 350여명의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제주출입

국 외국인청을 찾았다.

이처럼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제주 지역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분석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의 체류 목적은 무엇보다도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항이 중단됐던 제주-중국 항공기 운항도 재개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역에 무사증 입국 등으로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 수는 1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불법체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자진 출국하면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하고, 재입국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3일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불법체류 중국인 200여명이 몰리며 복세통을 이뤘다.

강희만기자

## 서귀포해경, 연안해역 통신장애 구역 해소

### 해양사고시 신속대응 위해 형제섬 인근·중문 해안 등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인호)는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해양경찰 전용 LTE통신망 통화품질을 조사, 서귀포 연안해역 음영구역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 전용 LTE통신망은 경비·작전·구조 등 현장 임무수행시 신속한 상황보고·전파·지휘 등을 위한

통신체계를 말한다.

서귀포해경은 이달 31일까지 일부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화순항 형제섬 인근, 중문해안 등 서귀포 남부연안 변경 10마일권 내 해역을 중심으로 음영구역을 파악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KT 등 통신사와 협력해 통화품질을 개선하는 등 작업을 통해 해양 긴급상황에 대비한 통신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코로나19로 제주시 야간민원실 잠정 중단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제주시가 운영하는 야간민원실이 잠정 중단됐다.

제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야간 민원실 운영을 상황종료 시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일과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맞춤형 민원 편의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6-8시 사이 야간 민원실을 운영, 민원인 편의를 도모해왔다.

하지만 제주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야간 민원실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다만 시 관내 읍면동과 중앙로

지하상가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상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13개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방역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내에는 무인민원발급기 36대가 운영되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부, 지방세 증명 등 각종 민원을 발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간 민원실 잠정 휴무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상황 종료 즉시 야간 민원실 운영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 해상서 80대 변사체 발견

제주 해상에서 실종 신고된 80대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3일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쯤 제주항 북쪽 2.7km 해상에서 조업 준비 중이던 어선에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변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제주해경에 접수됐다. 해경 구조대는 이날 오전 8시38분쯤 변사체를 인양, 육상으로 이송 후 제주시내 장례식장으로 안치했다.

이날 발견된 변사체는 A(85·여)씨로 확인됐으며, 이날 오전 8시쯤 A씨의 유가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사라졌다'며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은 A씨가 심하지 않은 경증 치매 증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기자

## "6월까지 제주4·3 희생자·유족 심사 결정"

### 행안부, 2020년 업무보고 통해 추진 계획 등 발표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강정공동체 회복도 포함

정부가 제주4·3희생자·유족 심사와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조성 사업을 2020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미해결 과거사 정리와 과거와의 화해'를 목표로 제주4·3과 관련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제주4·3희생자·유족 심사와 결정을 오는 6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서 제주4·3실무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한 정부차원의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기간 연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달 열린 제주4·3실무위원회는 4·3 72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제6차 추가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나 유족을 구제하기 위해 제7차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못다한 과거사 진실규명의 완결적 처리와 미래지향적

후속조치로써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도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 올해부터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 전문치유서비스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한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도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군사적 특수상황에 따른 피해·소외지역 지원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서해5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독자제보 ☎750-2232

## 코로나19 방역에 2억9000만원 긴급 지원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3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돕는 목적의 긴급사업비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긴급 사업비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이다. 모금회 측은 만일에 생길 수 있는 재해재난 사태를 대비해 기금을 적당하고 있다.

모금회 측은 이 긴급사업비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사회복지기관과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마스크와 소독용품 물품을 지원

할 방침이다.

김남식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과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지원사업을 편성하게 됐다"며 "도민들의 안전과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지원과 방역활동을 위해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특별모금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특별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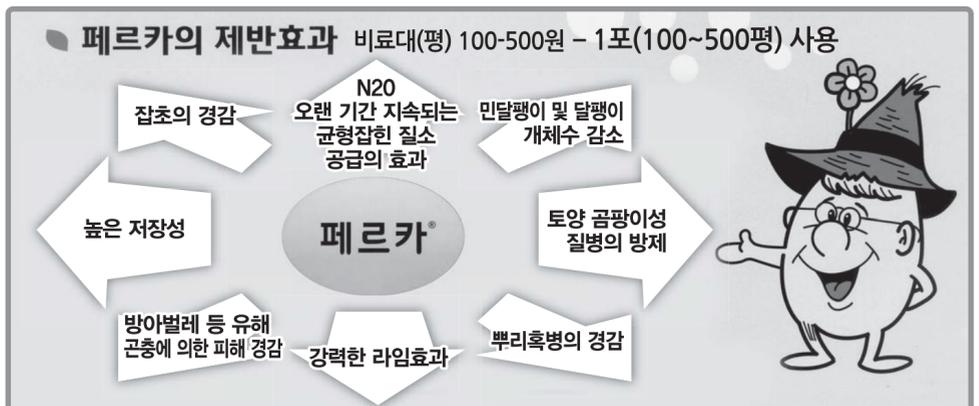
이상민기자

#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연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억제제, 광합성지원제품



##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